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수출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지원 팍팍! 홍보위해 다각적 노력 ... 영문책자 해외코트라에 비치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많은 인쇄사에서 인쇄물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인쇄물 수출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쇄업체들의 경우 중소형 업체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2011년 4월 인쇄수출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인쇄수출지원센터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업체의 영세성으로 수출증대 한계

국내 인쇄물 수출은 지난 2009년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약 3억5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인쇄물 수출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여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업체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수출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쇄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대한인쇄문화협회 내에 인쇄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상담, 해외시장 현황분석, 정보수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홍보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차이나프린트, 북엑스포아메리카 등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한국인쇄관 조성을 통한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인쇄수출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계획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물 책자발간, 인쇄물 수출의 해외홍보, 해외매체 광고게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프린트차이나(중국), 동경 북쇼(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독일), 아이펙스(영국) 등 유럽지역, 북엑스포아메리카 도서전(미국) 등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매체 홍보 및 홍보물 발간은 국내의 우수한 인쇄문화와 기술을 담은 영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국, 일본, 유럽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지역의 인쇄출판매체에 국내 인쇄문화산업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연계하여 인쇄물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내 인쇄문화산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인쇄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홈페이지 구축 등 상반기 사업성과

상반기 인쇄수출지원센터의 사업결과물로는 한국어, 영문, 중문, 일문의 홈페이지 구축, 프린트차이나 북엑스포아메리카 등 전시회 참가, 인쇄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www.printkorea.or.kr)은 국내 우수 인쇄물을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영문, 중문, 일문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홈페이지는 협회소개, 인쇄역사, 인쇄현황, 주요 수출 인쇄물, 수출업체 명단, 상담 등의 코너로 나누어져 있다.

인쇄역사는 한국의 인쇄역사연표와 세계인쇄문화연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인쇄문화연표는 한국과 세계의 인쇄역사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인쇄현황에는 한국의 인쇄현황과 인쇄물/인쇄기기 수출현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의 인쇄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인쇄업체수는 2만여 개 사이며, 사용하는 인쇄기계는 신문윤전기를 제외하고도 1만여 대에 달한다.

수출업체 명단에는 우리나라 인쇄 및 관련업체 80여 곳의 업체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이 소개되어 있다.

해외 전시회 참가

- 프린트차이나

2011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광저우 광동현대국제전시장에서 열린 프린트차이나에 참가했다. 프린트차이나는 12만㎡의 규모에 18개국 1261개사가 참가했으며, 70개국 12만명이 방문했다. 베이징국제인쇄기술전시회의 자매전시회로 차이나프린트와 번갈아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인쇄기 전시회로 중국 최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전시회다.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은 66㎡규모에 한국인쇄문화관, 참가사 개별관, 키페스 홍보관, 상담 및 휴게실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했다. 특히 한국인쇄문화관은 우수 인쇄물 및 위탁전시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상담과 함께 한국인쇄문화 홍보 및 고인쇄체험 시연을 진행했다.

직접 참가업체는 기선(주), 메탈스틱, (주)피에스텍 등 3개 사이며, 21개 사가 위탁 전시했다. 상담건수는 120여 건으로 상담실적은 80만 달러에 달했다.

- 북엑스포아메리카

2011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린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참여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3만8천㎡규모에 50개국 120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2만1664명이 방문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북미 최대 규모의 출판 관계 전시회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출판 관련자가 전시, 방문하는 전시회다.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도시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국내 인쇄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은 36㎡규모에 패널을 활용한 한국인쇄문화홍보, 영문 홍보물 배포, 위탁전시업체 홍보물 전시 및 수출상담 대행, 한국인쇄홍보 및 시연 등을 진행했다.

직접 참가업체는 글로벌프린트팩, 두산동아, 청아문화사, 팩컴, 해머아트 등 5개 사이며, 22개 사가 위탁 전시했다. 상담건수는 40여건으로 상담실적은 70만 달러에 달했다.

인쇄전문인력 양성

인쇄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쇄기술향상 및 인쇄물 수출증대와 함께 인쇄업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청년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구축했으며, 디지털인쇄환경에 부응하는 교육교재를 1종을 개발했다. 상·하반기 각각 2과목씩 진행해 40명씩, 연간 8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과과목은 인쇄물수출 전문가 과정, 인쇄용 그래픽이미지 가공과정, 디지털인쇄 교육과정,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한국인쇄역사의 해외홍보 및 국내 우수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영문판 소개 책자 및 CD를 발간했다. 이 소형책자는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80여개 기업의 해외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코트라에 도움으로 100개 Korea Business center에 비치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한편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쇄 전시회인 KIPES2011(9월 28일~10월 1일, 킨텍스전시장)에 홍보관을 설치해 해외 참가사 및 참관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2011 프랑크푸르트 도서전(10월 12일~16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홍보와 함께 인쇄물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